DS INVESTMENT & SECURITIES

매주 태호의 방산 Weekly

2026.09.07

강태호 방산 / kth@ds-sec.co.kr

K방산과 유럽 사이를 이간질하지 마세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인 Indra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Indra와 K9 자주포 등 수출 실행계약을 8월 31일 체결
- K9의 서유럽 시장 진출이 구체화됐으며 계약 체결 이후 20%, 연말까지 추가 5%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조건
- 스페인의 궤도형 자주포 사업은 자주포 128문, 탄약보급차량 120대, 지휘·구난차량 32대 등 총 280대 도입
- 전체 사업예산은 약 45.5억유로이나 한화의 K9 플랫폼 및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Indra가 현지에서 차체를 생산하고 전장관리·통신체계 등을 통합하는 구조로 한화의 수주 규모는 약 2~3조원 수준으로 추정
- K9 궤도형 기준 11개국으로 수출에 성공하였으나 서유럽 진출은 이번이 첫 사례/ 이번 계약은 현지 생산과 기술협력을 결합한 K9 수출 모델이 서유럽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준 사례로 판단
- 유럽이 현지생산 조건을 강화하는 만큼 스페인 모델과 같은 '기술이전+현지생산' 조합의 신규 수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 크로아티아 정부, 천무 18대 구매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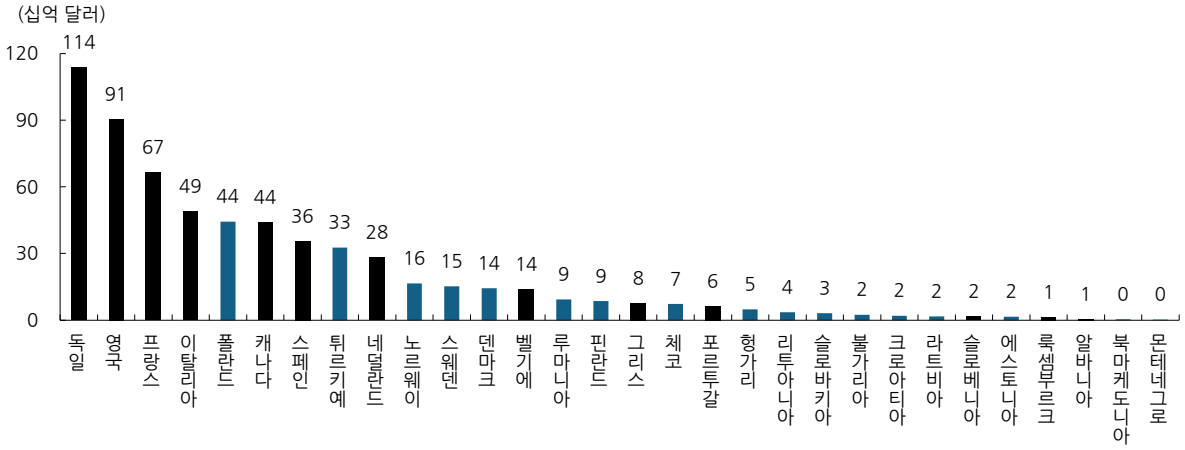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 정부는 9월 4일 천무 발사대 18대와 관련 패키지 구매를 승인/ 사업규모는 부가세 제외 4억3,520만 유로로, 국내 보도 기준 약 6,800억원 수준
- 이번 도입은 러우전쟁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 크로아티아 정부는 천무를 통해 단·중·장거리 정밀 화력지원 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으로 포병 전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
-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전체 패키지를 24~36개월 이내 인도받을 계획이며 NATO 표준 호환성·가격·화력과 짧은 납기를 선정 배경으로 제시. 유럽의 재무장 수요가 실제 전력 확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화의 신속한 공급능력이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수출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1) 하이마스를 주문한 상태에서도 납기 지연 및 타격능력 강화 목적으로 천무를 병행 발주한 점, 2) 최대 사거리 500km까지 가능한 사거리연장탄 여부
- 유럽 국가들의 천무 도입 확대에는 한화-WB JV를 통한 80km급 유도탄 현지 생산 추진으로 탄약 공급 안정성과 조달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미국이 프랑스 신형 MLRS와 독일의 EuroPULS에 대한 자국산 GMLRS 통합을 제한한 사례를 고려하면 유럽 내 탄약 생산 기반 확보는 탄약 주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천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 유럽 내 BM-21 계열 등 노후 MLRS의 교체 수요가 있는 루마니아·불가리아와 HIMARS 도입을 진행 중인 리투아니아·라트비아·스웨덴 등을 대상으로 천무의 추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번 스페인 K9 수출 계약과 크로아티아의 천무 구매 승인은 유럽의 역내산 무기 우선 조달 기조 속에서도 전략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성능·납기와 적절한 기술이전·현지화 조건을 갖춘다면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 Top Pick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표1 스페인 K9 자주포 진출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스페인 차세대 포병 현대화 사업
내용	- 스페인 방산기업 Indra 와 K9 기반 자주포 체계 공동 개발·생산 - K9 계열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차체를 설계·제조하고, Indra 가 임무체계, 360 도 상황인식, BMS, 통신체계 등을 통합
구성	155mm 궤도형 자주포 128 문, 탄약보급차 120 대, 지휘통제차 11 대, 지휘·구난차 32 대
예산	약 8 조원 (계약 체결 시 에어로는 약 2 조원 계약 예상(폴란드 Krab 자주포와 유사한 형태))
파급효과	**- 남유럽 핵심 NATO 국가의 대형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첫 레퍼런스 - 한국산 완제품 직수출이 아니라 현지 설계권한·기술이전·현지생산을 결합한 유럽형 수주 모델 - 남유럽 국가 추가 진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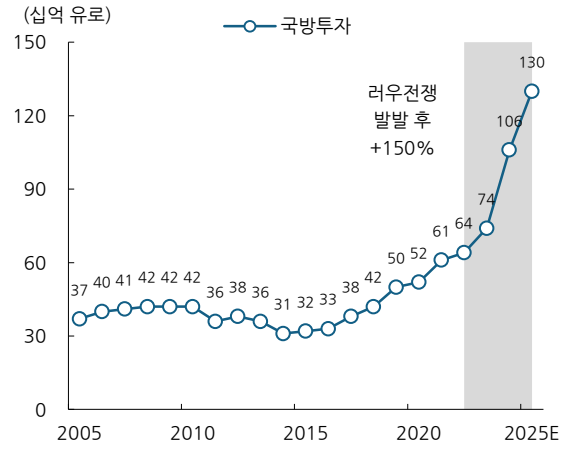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미국 제외 NATO 국가의 2025년 국방 예산: 검정색이 서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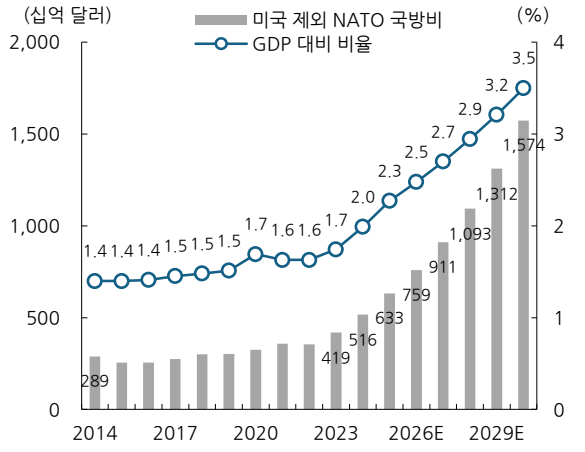
자료: NATO,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EU 국방 투자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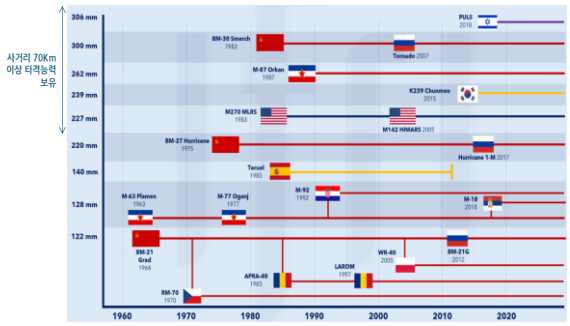
자료: Trebesch et al. (2023) "The Ukraine Support Tracker,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제외 NATO 국방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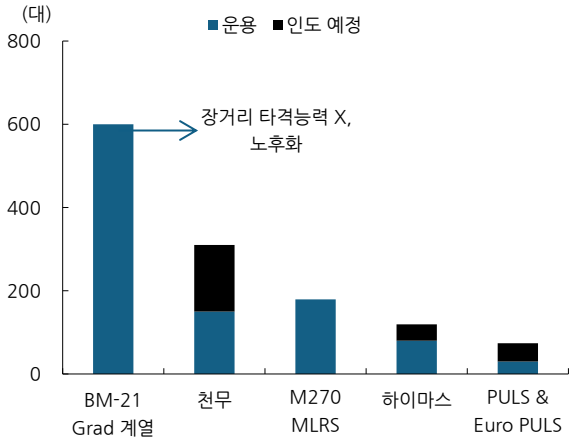
자료: NATO,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4 유럽 MLRS 계보



자료: IFRI,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유럽 MLRS 모델 별 보유 수량



자료: IFRI,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의 프랑스 신형 MLRS에 자국산 GMLRS 탄약 통합 거절

France Faces Strike Capability Gap After US Blocks GMLRS Missiles for Foudre and Thundart Launchers.

3 Apr, 2026 - 4:21 — Defense News Army 20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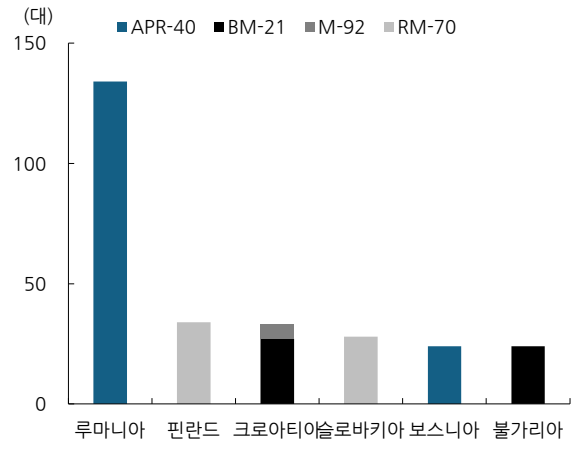
미국은 프랑스의 새로운 푸드르와 투다르 포병 시스템에 GMLRS 로켓의 통합을 차단했다.

이 거부는 Euractiv에 확인된 결과로, 프랑스의 로켓포 함대가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퇴역하기 전 단 9기의 운용 발사대로 축소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산 유도 로켓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두 프로그램 모두 개발 위험 증가, 비용 증가, 지연 가능성에 직면한다. 이 결정은 또한 NATO 상호운용성에 대한 가정을 깨뜨리고, 널리 사용되는 GMLRS 생태계와 연계된 수출 매력을 제한한다.

따라서 미국의 거부는 사소한 기술적 이견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HIMARS와 그 탄약에 대한 미국의 수출 관행은 최종 구성과 판매 제안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며, Euractiv의 출처에 따르면 프랑스 관리들은 이제 승인 획득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그 이유 중 하나로 들린다. 실제로는 워싱턴이 MLRS 탄약 계열 접근권과 해당 미사일 세트를 중심으로 대체 발사 플랫폼을 누가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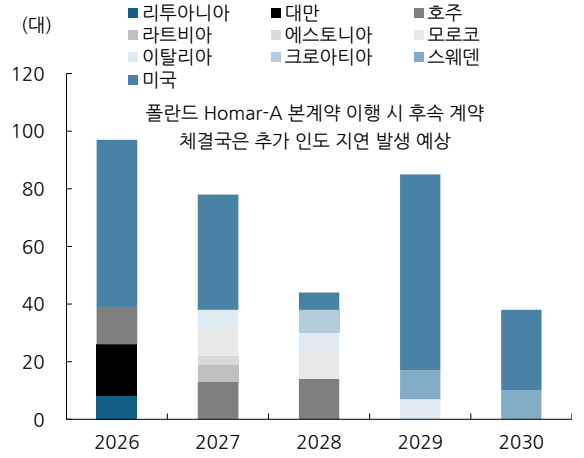
자료: Army recognitio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유럽 주요 국가별 1세대 MLRS 보유 현황



자료: IFRI,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하이마스 연도별 국가별 인도 일정 추정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 한국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한화에어로 K-MCS, 폴란드군 도입 '청신호'…한국서 성능검증 통과

-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과 폴란드 방산매체 포르탈 오브로니에 따르면 폴란드 군비청장이 구성한 시험평가단은 최근 한국에서 K-MCS에 대한 다단계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침
- K-MCS는 높은 내구성과 운용 안전성을 갖추고 K9 계열 자주포를 비롯한 현대식 155㎜ 포병체계와 호환되도록 개발
- 자동장전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사 후 포신 내부에 남는 잔여물을 줄여 연속 사격 때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것이 특징
- 특히 K-MC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동탄도양해각서(JBMoU) 기준을 충족해 폴란드군과 NATO 동맹국이 운용하는 호환 포병체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회사는 K9 자주포와 호마르-K 다연장로켓을 중심으로 이뤄진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탄약과 추진장약, 전 생애주기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
- K9 2차 이행계약에는 자주포와 155㎜ 탄약 공급뿐 아니라 폴란드 방산업계에 관련 노하우를 이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URL: https://bit.ly/3VgzXty

공정위,한화 KAI 15.89% 취득 승인…"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 공정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측 3개사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하고 8월 31일 통지
- 한화 측은 지난 10일 장내매수로 지분을 확보하고 11일 기업결합을 신고(상장사 15% 이상 취득 시 신고 대상,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 가능)
- 지배관계 미형성으로 판단돼 간이심사로 처리,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분석 없이 심사가 이루어져 한화와 KAI 사이 방산 분야 수직관계의 경쟁 제한 가능성 여부 별도로 보지 않음
- 최대주주 수출입은행 26.41%와 국민연금 8.75% 합산 35.16%를 고려하면 한화가 15.89%로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봤고 다른 주요 주주 간 협약도 없는 것으로 파악
- 향후 한화가 수출입은행을 제치고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1 이상 또는 대표이사 겸임하면 새로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

URL: https://bit.ly/4zY0UCd

한화, 스페인 방산업체와 K9 자주포 계약…서유럽 시장 첫 진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등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다고 8월 31일 공시하며 서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
- 경영상 비밀 유지로 물량·금액·기간은 비공개이나 거래소 수주 공시 기준(매출액의 2.5%)을 고려하면 계약 규모는 6,67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
- 1차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20%, 2차 선급금은 연내 5%를 지급하는 조건
- 스페인 군사전문매체 인포디펜사는 인드라를 주축으로 추진되는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 규모가 최대 45억1600만유로(약 7조7000억원)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스페인은 K9 수출 11번째 국가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핀란드·인도·노르웨이·에스토니아·호주·이집트·루마니아 등에 수출해옴

URL: https://bit.ly/3SNwrpY

1.9조 KF-21 장거리 공대공 수주전 개막…한화 vs 로템·LIG

- KF-21 보라매에 실을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이 9월 7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ADD가 평가를 거쳐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2033년까지 7535억원을 들여 개발을 마치고 2035년부터 1조1471억원 규모 양산에 들어가는 일정
-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미 개발에 들어가 장거리 공대공은 KF-21 국산 무장 중 마지막 대형 과제로 꼽힘
- 현재 KF-2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 MBDA의 미티어를 활용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공대공 미사일 개발 미착수를 지적한 바 있음
- KF-21은 200대 이상 해외 수출이 거론되고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필리핀·UAE·이집트 등이 잠재 고객으로 꼽힘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고 LIG D&A는 임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
- 두 건 모두 확정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10월 선정까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이번 수주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

URL: https://bit.ly/4A3lkc8

내년 국방비 8.2%늘어난 73조원 편성…핵잠예산 첫 반영

-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5조5737억원 늘린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사상 첫 70조원 돌파, 증가율 8.2%는 2007년 이후 최대폭
- 전력운영비 50조416억원(5.9% 증가), 방위력개선비 22조7112억원(13.8% 증가로 2008년 이후 최대폭),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됨
-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 상태
-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을 18조6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늘림
-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
- 핵추진잠수함 예산 약 1000억원을 처음 반영
- KF-21 양산 예산은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 천무 다연장 로켓에 장착되는 무유도탄 1,803억에서 5,504억으로 증액
- 정찰위성·항공통제기가 포함된 지휘정찰사업 예산이 28.9% 급증, 드론·대드론 예산은 67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
-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당길 계획

URL: https://bit.ly/4hel0Ri

▪ 글로벌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해군, 신형 훈련기 도입 계획 및 계약 체결일 연기

- 미 해군은 참가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26년 10월 30일까지 연장/ 결과 발표는 27년 6월 30일로 미룸
- 해군의 새로운 훈련기는 1990년대 초 해군과 해병대 조종사들의 항공모함 운용 및 전술 공격 임무 훈련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T-45 고쇼크 기종을 대체할 예정
- 지난 3월, 해군은 T-45와 달리 신형 훈련기는 더 이상 항공모함 착륙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RFP를 공개
- 대신, 항공기는 FCLP를 지원하여 이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군은 제안요청서(RFP)에서 경쟁업체들이 조종사들이 항공모함에 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독특한 항공기 시뮬레이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힘
- 현재 UJTS 프로그램 입찰 경쟁에는 레오나르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치크래프트 M-346N을 제공하는 텍스트론 항공방위(Textron Aviation Defense)와 노스롭 그루먼 및 제너럴 아토믹스와 협력하여 프리덤 훈련기를 제공하는 SNC가 참여
- 록히드 마틴은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F-50N 기종을 해당 사업에 제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 또한 6월 경쟁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

URL: https://bit.ly/3VgRpy7

미 육군, 4억 650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로 레이저 생산 착수

- 미 육군은 이번 주 에어로비론먼트(AeroVironment, Inc.)에 4억 6480만 달러 규모의 고에너지 레이저(E-HEL) 프로그램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군 역사상 최초의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생산 계약
- 미 육군에 따르면 E-HEL은 무인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하는 대신 목표물에 레이저 빔을 발사하며,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레이저 탄창을 재장전할 수 있음
- 해당 시제품들은 스트라이커 전투 차량에 맞춰 제작되었지만, AV의 LOCUST X3 레이저 무기는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육군의 합동 경량 전술 차량(JLTV)에도 장착할 수 있음

URL: https://bit.ly/4yeVYXX

독일 정부는 라이프치히 공항 드론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

- 베를린 당국은 지난달 독일의 주요 공항인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대한 드론 공격 실패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화요일 발표하고, 모스크바의 행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함께 내놓음
-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조사 끝에 독일 조사관들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작전을 암시하는 명백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힘
-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러한 결정을 "심각한 실수"라고 부르며, 독일 정부가 국내 정치적 어려움과 메르츠 총리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난

URL: https://bit.ly/4zG1ggX

우크라이나, EU에 첫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자금 지원 요청

-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방어 체계에 사용할 PAC-3 요격 미사일 구매를 위해 수십억 유로를 지출하겠다는 요청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유럽 관계자들이 이번 주 발표
- 이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 승인된 9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차관을 미국산 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공식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한 첫 사례
- 이번 성명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예브게니 흐마라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탄도 미사일 요격기 부족 에 직면한 가운데, 키이우, 오데사 및 기타 도시에 대한 공습을 2주째 거의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음
- 그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27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키이우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에 있어 "윈윈"이라고 강조
- 키이우가 활용하고자 하는 900억 유로 규모의 차관은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지난 4월 유럽연합 이사회 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중 약 600억 유로는 국방 조달에, 300억 유로는 예산 지원에 배정
- 하지만 해당 대출 계약의 규정은 유럽 및 우크라이나산 무기를 우선시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비EU/우크라이나산 부품의 비중을 구매액의 35%로 제한
- PAC-3는 미국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키이우가 해당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공식적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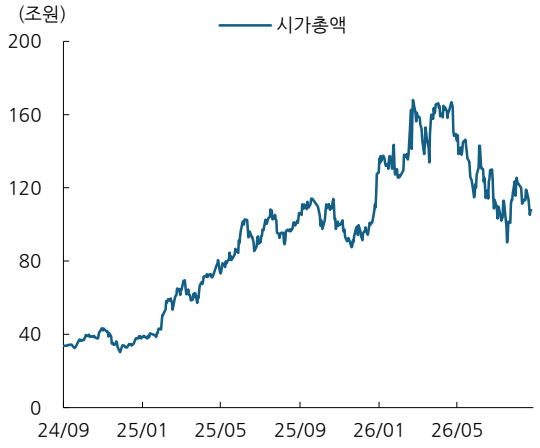
URL: https://bit.ly/465p2p0

미 공군은 이란의 패배 이후 리퍼 후속 무기 개발 일정을 앞당김

- 미 공군은 MQ-9A 리퍼의 실전 손실로 인해 드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게 되자, 더 저렴하고 소모성이 적은 후속 기종 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9월 3일 관계자들이 밝힘
- 공군 현대화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니에미 중장은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MQ-9의 노후화에 따라 후속 기종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브리핑 내용을 보도한 브레이킹 디펜스 에 따르면, 그는 "현재 MQ-9A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소모되는 속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함
- 디펜스 데일리는 트로이 메인크 공군 장관이 개발 가속화를 지시했으며, 2031 회계연도에 목표로 제시된 임무 수행 가능 항공기 20대 확보 시점이 약 2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도
- 5월에 데이비드 테이버 중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항공·육군 소위원회에서 미군 항공기 보유 대수가 약 135대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 , 이는 미군의 최소 보유 대수인 189대보다 약 54대 적은 수치
- 제너럴 아토믹스는 2025년에 MQ-9A 생산을 중단했고, 테이버는 공군이 2026 회계연도에 기존 MQ-9A 기체를 단기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미 공군은 지난 5월 더 저렴하고 모듈식이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항공기에 대한 요구사항 계약을 체결
- 대규모 모듈형 항공기(MMA) 프로그램은 리퍼급 공격,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전자전, 통신 중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드론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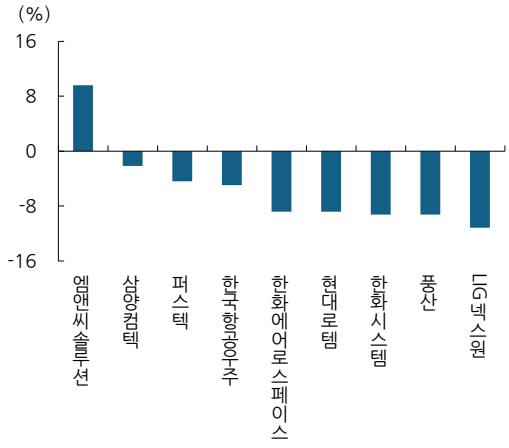
URL: https://bit.ly/3TecEQE

그림9 방산 5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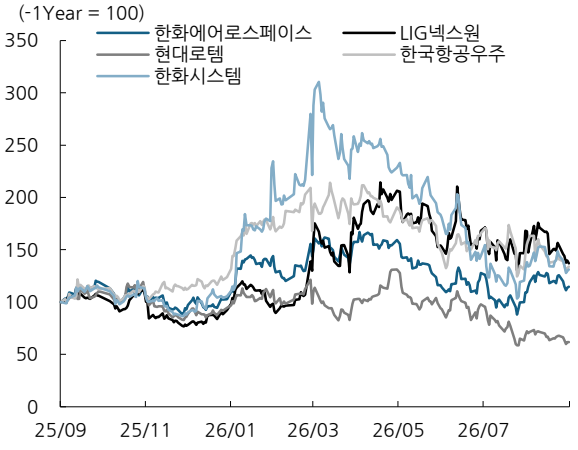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방산 주요 기업 1W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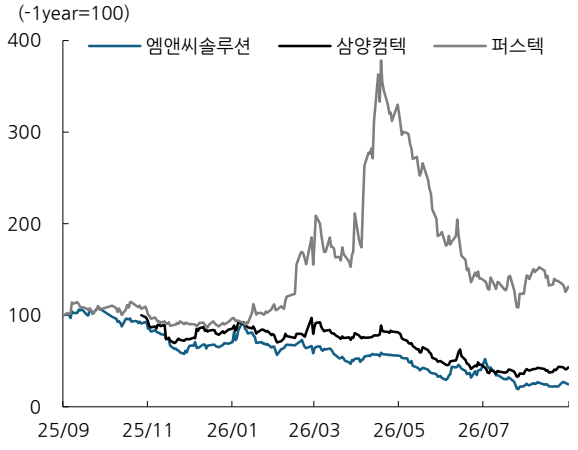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방산 5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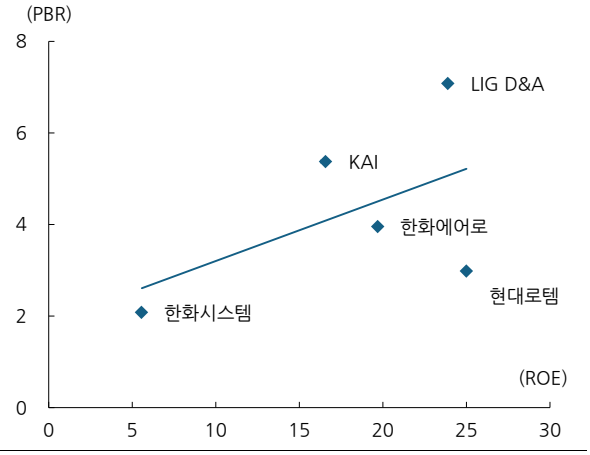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방산 주요 부품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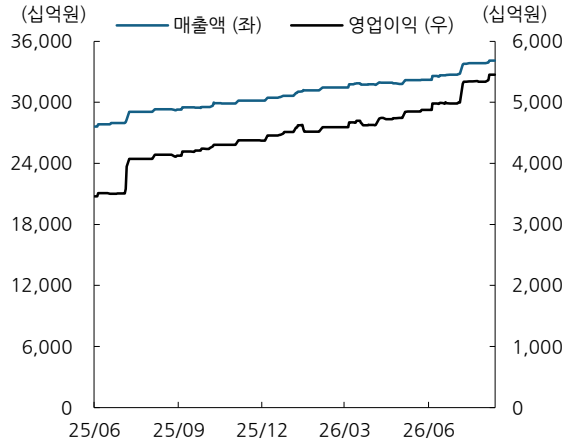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방산 5사 12M Fwd PBR-ROE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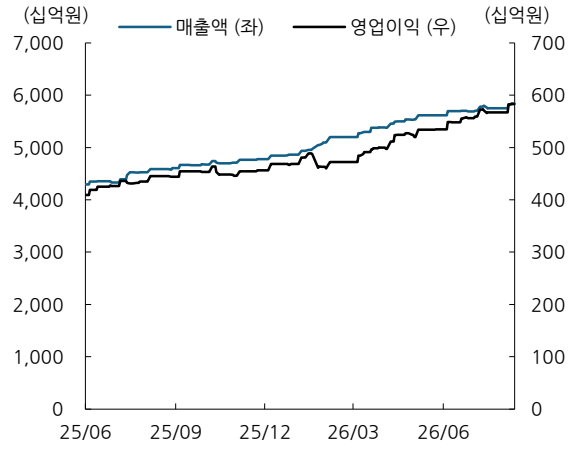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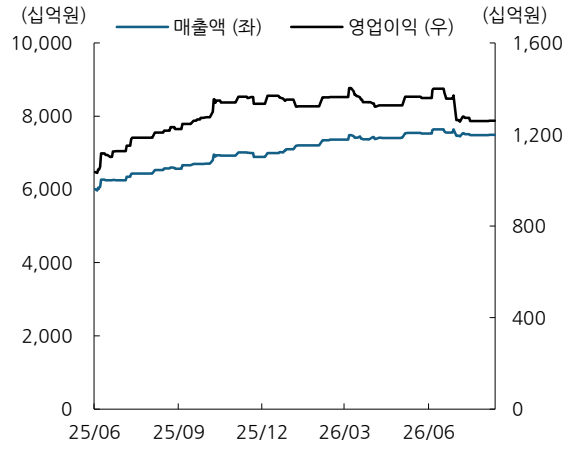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LIG D&A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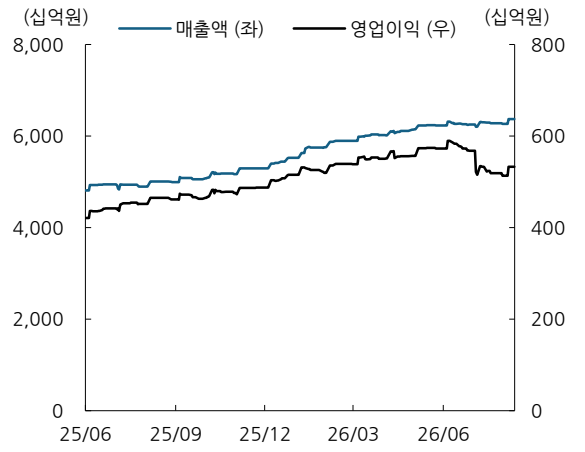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현대로템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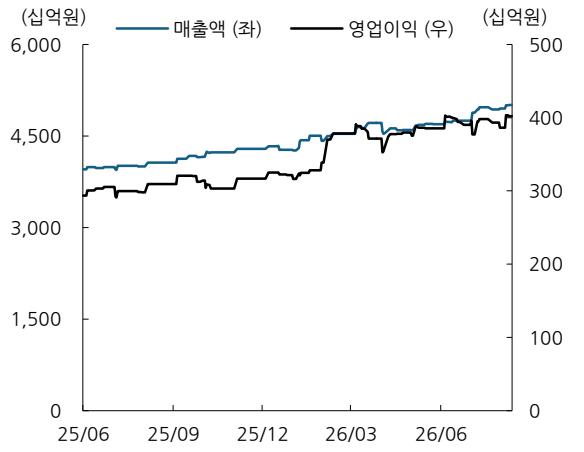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한국항공우주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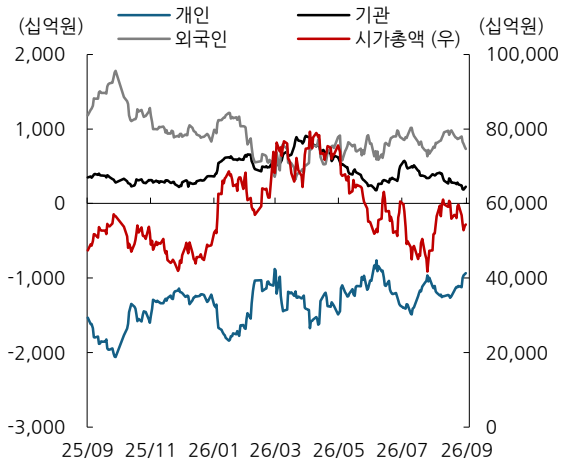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한화시스템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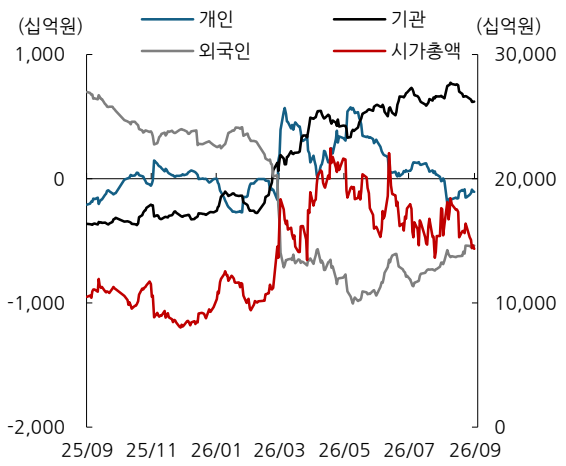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한화에어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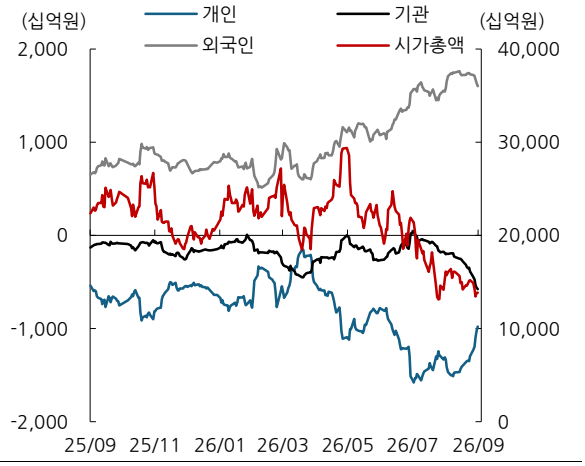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LIG D&A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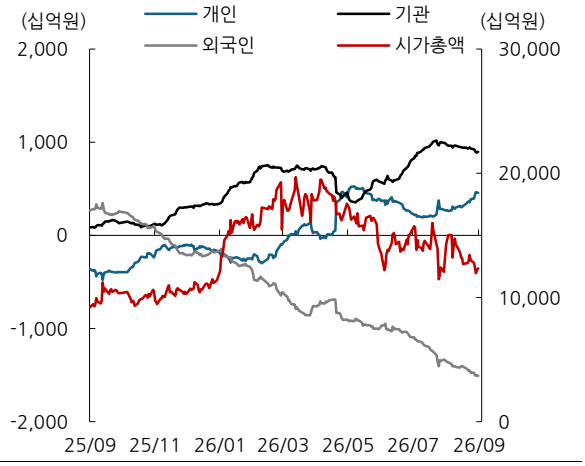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현대로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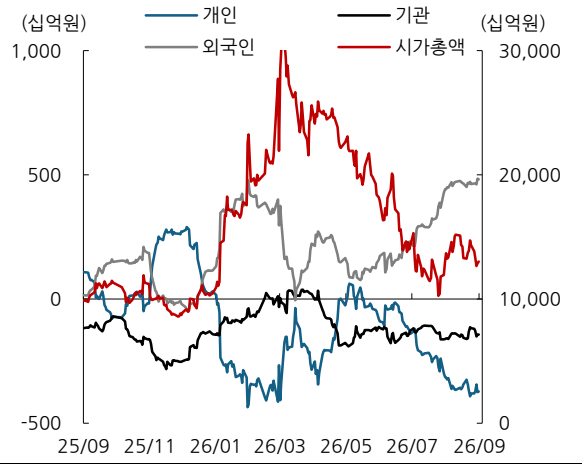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한국항공우주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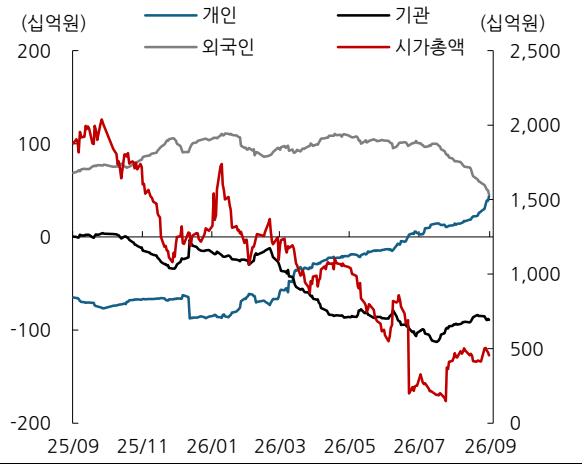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한화시스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엠앤씨솔루션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